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0. 8.(목) 16:00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전면 해제

-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 결과, 추가 어업 피해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10월 8일 16시부터 해파리 특보 전면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8일(목) 16시부터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이 9월 21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 해파리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특보가 발표된 4개 해역 중 부산·울산 앞바다, 경북 동해 앞바다, 전남 남해 앞바다에서는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았다. 경남 남해 앞바다의 경우 평균 617개체/ha가 출현했으나, 현재 산란기인 관계로 산란 후 폐사할 것을 감안해 추가적인 어업 피해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파리 특보를 전면 해제했다.

올해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는 5월 26일 ‘관심’ 단계로 처음 발령된 이후, 6월 8일 ‘주의’ 단계로 상향되었으며, 총 136일간 유지됐다. 올해는 5월 수온이 평년 대비 1~2℃ 높아 해파리가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했으나, 위기 경보 유지 기간은 전년도 147일보다 11일 짧았다.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서 자생하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지난해와 유사한 출현 양상을 보였다. 반면, 외해에서 유입되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해역에서 유체가 대량으로 발생한 뒤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었으나, 해류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서해와 동해로 분산되어 평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출현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파리 제거량은 전년도보다 38.7% 감소한 2,161톤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에 수립한 ‘해파리 어업 피해 방지 대책’에 따라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국비 16.2억 원을 지원해 해파리 2,161톤을 제거하는 등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재난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내년 재난 대응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는 해파리 대량 출현 시기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과 지방정부에서 해파리 신고와 제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최근 해파리 대량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독성 해파리 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태 (051-773-5542)
			주무관	조화진 (051-773-5535)
	국립수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기후변화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연구사	김경연 (051-720-2223)

붙임 1**해파리 특보 발표,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발령 현황**

- 2026년 해파리^(경남 남해 앞바다) 예비 주의보 특보 발표(5.26./수과원)
- 2026년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관심' 발령(5.26./해수부)
- 2026년 해파리^(전북 서해 앞바다) 예비 주의보 특보 발표(6.8./수과원)
- 2026년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주의' 발령(6.8./해수부)
- 2026년 해파리 주의보 특보 상향^(경남 남해 앞바다) 및 예비 주의보 신규^(전남 남해 앞바다, 제주 앞바다) 발표(6.22./수과원)
- 2026년 해파리 특보(예비 주의보) 확대^(부산·울산 앞바다) 발표(7.22./수과원)
- 2026년 해파리 주의보 특보 상향^(전남 남해 앞바다) 및 예비 주의보 신규^(경북 동해 앞바다) 발표(7.30./수과원)
- 2026년 해파리 예비 주의보 해제^(전북 서해 앞바다, 제주 앞바다) 발표(9.4./수과원)
- 2026년 해파리 특보 전면 해제^(전남 남해 앞바다, 경남 남해 앞바다, 부산·울산 앞바다, 경북 동해 앞바다) 발표(10.8./수과원)
- 2026년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 발령 해제(10.8./해수부)

